

#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Mediating Effect of Self-Resilience in Influenc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Self-Efficacy,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areer Maturity

정유진,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Yu-Jin Jeong(grim5545@hanmail.net), Sang-Hae Byun(jm9004@svu.ac.kr)

## 요약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능력과 자아탄력성을 결합시켜 여대생의 진로성숙도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3월 6일 부터 3월 20일까지 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00도 00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345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여, 33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v.22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수입과 학년은 진로성숙도에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인관계능력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탄력성은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대인관계능력과 진로성숙도 사이에서 모두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의도된 변인들을 결합시킨 진로성숙도 증진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를 지원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중심어 : | 자기효능감 | 대인관계능력 | 자아탄력성 | 진로성숙도 |

##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preliminary study to help prepare a career support program that combines self-efficac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resilience for female college students. To that end, a survey was executed on 345 female students of two universities, one in the Southern area and one in Norther area of Kyunggi-do from March 6 through 20, 2017, and 333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using SPSS v.22. Major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amily income and school years showe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Second, self-efficacy was found to influence career maturity. Third, interpersonal competence was found to influence career maturity. Fourth, self-resilience was shown to have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th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areer maturity.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ce in that a career-maturity enhancing program combing all the factors mentioned herein can be served as useful information for universities and colleges which intend to offer such program to female students.

■ keyword : | Self-Efficacy | Interpersonal Competence | Self-Resilience | Career Maturity |

## I. 서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적게는 고등학교 3년, 많게는 중학교 시절부터 기나 긴 ‘입시지옥’을 뚫고 대학에 진학한다. 하지만 대학 합격이라는 안도감도 잠시 뿐, 머지않아 취업이라는 또 다른 난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스펙 쌓기’에 매진한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영역이나 적성 등을 고려한 진로탐색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진학하여 진로를 결정하거나[1], 직업선택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2].

더구나 극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갈수록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어 기업들이 고용을 축소하거나, 신규인력 채용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취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청소년 실업률에 대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대학들도 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학생의 취업률은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12년 청년실업률이 7.3%이었으나, 2016년에는 12.5%로 높아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는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3].

이러한 경제 상황은 향후 대학생들이 진로를 위해 개인의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더욱 더 절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대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분석해 보면 진로와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내적 요인은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및 상황적 차원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첫째, 개인적 차원으로 빈번하게 언급되는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을 들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화시키고 실행해 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말한다[4]. 이는 대학생들이 ‘성공적인 진로’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길러야 한다[5].

둘째, 관계적 차원으로 대인관계능력을 들 수 있다. 대인관계능력이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에서 야기되는 갈등이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말한다[6]. 이는 상호의존성이 인간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요소[7]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대인관계능력은 개인적인 능력과 함께 타인과 많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직장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상황적 차원으로 자아탄력성을 들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란 “장애물을 극복하고 역경을 헤쳐 나가며, 실패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능력”을 말한다[8]. 다시 말하면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게 적응해가는 심리적 자원[9]으로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 상황과 이로 인한 취업난에서 성공적으로 생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심리적 역량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대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타인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등의 포괄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10년(2007-2016) 동안 학술연구서비스(RISS)에서 ‘대학생’과 ‘진로성숙’을 핵심어로 동시에 입력하여 보고된 연구결과를 검색한 결과, 학위 논문은 28건, 학술지 논문은 34건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들 논문은 주로 개인적 차원[10-12]이나, 관계적 차원[13][14]과 상황적 차원[15][16]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며, 모든 차원을 동시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더 나아가 여대생을 대상으로 검색된 논문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여대생들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재학생 수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확대되고 있지 않아 진로문제로 더욱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17]. 여대생의 진로적응성이 남학생보다 낮으며[18-20], 취업률도 상대적으로 낮다[21]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 여대생이 가진 진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록 선행연구에서 여대생들의 진로성숙도가 남자 대학생들보다 높다는 일부 연구 보고[22-24]가 이루어졌으나, 여대생의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여대생의 진로

성숙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발휘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여대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25], “다양한 상황에서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26], 또는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유능감”[27]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정의들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여 노력할 때 자기효능감이 그 일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28].

따라서 높은 자기효능감은 환경과 활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주고,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이 되고 있으나[29], 낮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행동 양식, 성취동기, 목표달성, 자아실현, 사회적 적응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행동과 환경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0]. 이러한 점에서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자기효능감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반두라(Bandura)는 자기효능감을 자신감, 자기조절능력과 과제난이도 선호 등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첫째, 자신감이란 자신이 가진 가치와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신념의 정도를 말한다. 둘째, 자기조절능력이란 자신의 능력을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효능기대(Efficacy Expectation)이다. 셋째, 과제난이도란 개인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난이도 수준을 말한다[31].

### 2.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이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처리해나가는 능력”[14],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32],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33]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정의는 인간이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것이 삶의 본래의 특성으로, 대인관계가 인간의 생활 그 자체[34]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직장 환경은 전통적으로 여대생을 포함하여 남성과 차별적인 성역할을 요구받는 여성들에게는 진로장벽으로 작용해 왔다[35-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대인관계능력(Interpersonal Competence)을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Shcelin & Guerney[39]에 따르면 대인관계능력은 만족감, 감정이해, 의사소통, 개방성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만족감은 타인들과의 관계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짐으로써 느끼는 감정(Satisfaction)으로 내가 타인에 대하여, 타인이 나에게 대하여 보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감정이해는 이성적으로 감정 상태를 분별하여 해석하며 포용할 수 있는 정도와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는 정도, 타인과 미래에 맺고 싶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 정도나 타인과의 의견 불일치를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는 민감성(Sensitivity)을 말한다. 셋째, 의사소통은 원하는 의미를 능동적으로 전달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 타인의 욕구와 바람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정도와 나와 타인의 느낌에 대한 이해 정도, 나와 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말한다. 넷째, 개방성은 자신의 내면 및 행동을 타인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타인의 부정적 느낌을 건설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의 개인적 관심사를 나누고 싶은 정도(Openness)를 말한다.

###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역경을 뚫고 나아가며, 실패한 관계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능력”[16],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적응하는 성격유형”[40] 또는 “환경적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41]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능력이다[42].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가족이나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43], 자아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으며 명확한 정체성을 보인다 [44]. 또한 현실적인 통제감과 자긍심이 높고 사회적 수준이 높아서 문제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측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45].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Atsushi[46]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인 미래지향성 3개 하위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은 다양한 사물에 흥미나 관심을 갖는 것으로 새로운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감정조절로서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는 능력을 말한다. 셋째, 긍정적인 미래지향성으로 희망이나 목표를 가지고 장래의 계획을 세우고 불안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정신적인 회복을 충분히 이끌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 4.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란 “특정 개인이 삶의 단계에서 갖추어야 할 직업적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도”[47], “자아와 직업 세계를 잘 이해하여 이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준비 정도”[48], 또는 “현실적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49]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정의는 진로성숙도가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의 세계에서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개인의 능력이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진로성숙도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개발, 개선시켜야 할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여대생들은 취업률이 남학생보다 현저하게 저조하며[50], 취업 후의 대우나 경력의 연속성 및 승진 등에 있어서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36]. 여대생들은 직업적인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고,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Crites에 따르면 진로성숙도는 결정성, 목적성, 준비성, 독립성 및 확신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결정성은 선호하는 진로에 대한 확고한 결심의 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목적성은 진로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 셋째, 준비성은 진로에 대한 몰입과 진로 선택의 준비 정도를 뜻한다. 넷째, 독립성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다섯째, 확신성은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 믿음과 확신의 정도를 나타낸다[36][49].

진로성숙도는 사회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보고에 따라 가정의 수입 [51][52]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와,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53-55]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 문제

#### 1.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여대생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 모형 및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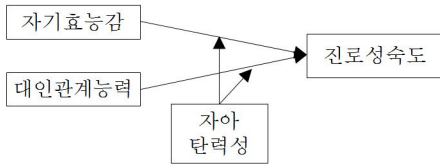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 1.2 연구문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여대생의 진로성숙도는 사회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
- [연구문제 2] 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여대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여대생의 자아탄력성은 진로성숙도에 매개효과를 미치는가?

### 1.3 연구가설

위의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수립하였다.

- 가설1-1 : 여대생의 진로성숙도는 가정의 수입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1-2 : 여대생의 진로성숙도는 학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 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 여대생의 대인관계능력은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4-1: 여대생의 자아탄력성은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 가설4-2: 여대생의 자아탄력성은 대인관계능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00도 00 지역에서 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00도 00지역의 K대학교, 00도 00지역의 S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은 총345부를 배포하여 결측치 및 불성실 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333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측정도구 및 내용

### 3-1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반두라(Bandura)의 이론을 토대로 Sherer 등[56]이 개발하고, 김아영과 차정은[57]이 번안하여 나성윤[58]이 사용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 및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은 총 24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로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능력 12문항, 과제난이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이며, 본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는 [표 1]과 같다.

### 3-2 대인관계능력

Schlein & Guernay[39]는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하고, 서현석[59]이 사용한 대인관계능력 측정도구는 본 연구의 목적 및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로 만족감 5문항, 감정이해 7문항, 의사소통 6문항, 개방성 5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인관계 능력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이

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는 [표 1]과 같다.

### 3-3 자아탄력성

Atsushi[46]은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하였고, 민동일[60]은 “Resilience Scale” 영어판을 번안·수정하였으며, 강명숙[61]은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 및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 별로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6문항, 감정조절 7문항, 긍정적 미래지향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는 [표 1]과 같다.

### 3-4 진로성숙도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rites[49]가 개발한 CMI(Career Maturity Inventory)를 이기학[62]이 번안하고, 김말선[63]이 사용한 설문지는 본 연구의 목적 및 내담자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는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 별로 결정성 6문항, 목적성 7문항, 준비성 5문항, 독립성 4문항과 확신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성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며, 본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및 구성타당도는 [표 1]과 같다.

표 1. 각 변수의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

척도	신뢰도	구성타당도		
		KMO	Bartlett	P
자기효능감	.885	.896	3105.317	.000
대인관계능력	.837	.896	2748.723	.000
자아탄력성	.901	.888	3581.905	.000
진로성숙도	.828	.866	4534.696	.000

##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를 위하여 SPSS v.22를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기본적인 사회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하위요인 사이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셋째, 독립변수가 발휘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매개분석을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가설검증

### 1. 연구결과

#### 4-1 조사 대상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응답자 중 최종분석 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대상의 사회통계학적 통계

구분	빈도	백분위	
학년	1학년	130	39.0
	2학년	91	27.3
	3학년	71	21.3
	4학년	41	12.3
	합계	333	100.0
연령	20-25세	307	92.2
	25-30세	14	4.2
	30세 이상	12	3.6
	합계	333	100.0
가정의 수입	상(500만원 이상)	22	6.6
	중(250-500만원)	265	79.6
	하(250만원 미만)	46	13.8
	합계	333	100.0
직장유무	있음	27	8.1
	없음	306	91.9
	합계	333	100.0
종교	기독교	88	26.4
	불교	16	4.8
	가톨릭	24	7.2
	기타	3	.9
	무교	202	60.7
	합계	333	100.0

먼저 응답자들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130명 (39.0%), 2학년이 91명(27.3%), 3학년이 71명(21.3%), 그리고 4학년이 41명(12.3%)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령대는 20-25세가 307명(92.2%), 25-30세가 14명 (4.2%), 그리고 30세 이상이 12명(3.6%)으로 조사되었다. 가정의 수입은 ‘상’이 22명(6.6%), ‘중’이 265명 (79.6%), 그리고 ‘하’가 46명(13.8%)로 조사되었다. 직장 유무의 경우, ‘있음’이 27명(8.1%)과 ‘없음’이 306명 (91.9%)으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88명 (26.4%), 불교가 16명(4.8%), 가톨릭이 24명(7.2%), 기타가 3명(.9%) 그리고 무교가 202명(60.7%)으로 나타났다.

4-2.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여대생의 진로성숙도 차이

여대생의 진로성숙도가 사회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가정의 수입과 학년에 따라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4-2-1. 가정의 수입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가설 1-1]

가정의 수입에 따른 여대생의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결과, 가정의 수입이 많을수록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950, P=.388). 세부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가정의 수입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F	P
상	22	3.37	.45	.950	.388
중	265	3.33	.44		
하	46	3.24	.51		
전체	333	3.32	.45		

\* 상: 500만원 이상, 중: 250-500만원, 하: 250만원 미만

2. 가설검증

4-2-2.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가설1-2]

학년에 따른 여대생의 진로성숙도를 비교한 결과, 평균값에서는 물론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727, P=.537). 세부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학년에 따른 진로성숙도의 차이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F	P
1학년	130	3.31	.45	.727	.537
2학년	91	3.34	.48		
3학년	71	3.30	.43		
4학년	41	3.42	.44		
전체	333	3.33	.45		

4-3.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가설 2]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자기효능감 전체에 대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8.223(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67.616 (P=.000), R<sup>2</sup>=.152로 15.2%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요인도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자기조절능력은 t=10.249 (p<.001)으로 가장 높은 설명력(21.8%)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세부내용은 [표 5]와 같다.

4-4.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가설3]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인관계능력 전체에 대해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t=6.793(P=.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은 F=48.622(P=.000), R<sup>2</sup>=.115로 11.5%의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대인관계능력의 모든 하위요인도 진로성숙도에

표 5.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B)	표준화계수(β)	t	P	F	R / R <sup>2</sup> / Adj. R <sup>2</sup>
(상수)			18.943	.000		
자신감	.092	.168	3.310**	.001	10.597	.168 / .028 / .026
자기조절능력	.346	.467	10.249***	.000	105.051	.467 / .218 / .216
과제난이도	.104	.184	3.628***	.000	13.159	.184 / .034 / .031
전체	.322	.664	8.223***	.000	67.616	.390 / .152 / .150

\*\*\* p<.001,\*\*<.01

표 6.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beta$ )	t	P	F	R / R <sup>2</sup> / Adj. R <sup>2</sup>
(상수)			15.720	.000		
만족감	.199	.310	6.333***	.000	40.105	.310 / .096 / .094
감정이해	.140	.185	3.663***	.000	13.417	.185 / .034 / .032
의사소통	.161	.278	5.620***	.000	31.589	.278 / .077 / .075
개방성	.119	.201	3.991***	.000	15.925	.201 / .041 / .038
전체	.290	.338	6.973***	.000	48.622	.338 / .115 / .112

\*\*\* p<.001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만족감은  $t=10.249(p<.001)$ 으로 가장 높은 설명력(9.6%)을 보였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세부내용은 [표 6]과 같다.

4-5.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설4]

4-5-1.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설 4-1]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696, p<.001$ ), 매개효과 분석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381, p<.001$ ), 매개분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기효능감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beta=.575, p<.001$ ), 그와 동시에 자기효능감이 2단계에서보다 영향력이 줄어( $\beta=-.019$ ) 자아

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1,2,3단계에서의 설명력(R<sup>2</sup>)은 각각 48.5%, 13.50%, 31.6%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 테스트 결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Z=8.07, p<.001$ ). 세부내용은 [표 7]과 같다.

4-5-2. 대인관계능력과 진로성숙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설 4-2]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대인관계능력이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610, p<.001$ ) 매개효과 분석의 첫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대인관계능력이 종속변수인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beta=.313, p<.001$ ) 매개분석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켰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대인관계능력과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진로성숙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매개변수

표 7.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 $\beta$ )	SE	t	R <sup>2</sup>	F/P	VIF
1단계 (독립 → 매개)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774(.696)	.044	17.654***	.485	311.654/.000	1.924
2단계 (독립 → 종속)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315(.381)	.042	7.500***	.145	56.257/.000	1.887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016(-.019)	.052	-.305	.316	76.096/.000	1.868
	자아탄력성		.427(.575)	.047	9.063***			

\*\*\* p<.001



표 8. 대인관계 능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B(β)	SE	t	R <sup>2</sup>	F/P	VIF
1단계 (독립→매개)	대인관계능력	자아탄력성	.731(.610)	.052	14.012***	.372	196.345/.000	1.966
2단계 (독립→종속)	대인관계능력	진로성숙도	.278(.313)	.046	5.986***	.098	35.827/.000	1.852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대인관계능력	진로성숙도	-.043(-.048)	.046	-.837	.317	76.540/.000	1.872
	자아탄력성		.439(.591)	.043	10.291***			

\*\*\* p<.001

인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β=.591, p<.001). 그와 동시에 대인관계능력이 2 단계에서보다 영향력이 줄어(β=-.048)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가설을 채택하였다. 1, 2, 3단계에서의 설명력(R<sup>2</sup>)은 각각 37.2%, 9.8%, 31.7%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검증을 위한 Sobel 테스트 결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Z=8.26, p<.001). 세부내용은 [표 8]과 같다.

## V. 논의 및 제언

### 1. 논의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의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도출한 네 가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사회통계학적 특성 중에서 여대생의 진로성숙도는 가정의 수입이 높을수록 평균이 높게 나타났지만,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혁[51]에 따르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을 연구하였고, 주진석[52]은 청소년의 직업가치와 진로성숙도 연구는 가정의 수입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차이가 났다.

반면에 탁승현[64]은 연구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소용준과 박준성[65]은 대학생활 적응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서우석[66]은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 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의 인과적 관계를 연구한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사회통계학적 특성 중 또 다른 요인인 여대생의 학년별 진로성숙도의 평균은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최영재[53]는 미용전공대학생의 가치관, 전공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남궁혁[54]은 청소년의 진로성숙 및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하였고, 김형균[55]은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행동 준비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고학년일수록 진로성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금선미[67]는 여대생의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을 연구하였고, 이현아[68]는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진로태도 성숙도를 분석하였으며, 이슬[22]은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와 관련된 연구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가정의 수입이나 학년에 따른 맞춤형 진로성숙도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모든 하위요인도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의하면 탁승현[64]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황윤진[70]은 무용전공 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정희영[71]은 미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와는 유사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진로

성숙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자기효능감을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 포함시키는 한편, 하위요인들 사이에 적절한 가중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능력 전체는 모든 하위요인도 진로성숙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김동일, 남지은, 강민철[72]은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희진, 조규환[73]은 대인관계능력, 진로성숙도, 진로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고, 김수현[74]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진로성숙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대인관계능력도 자기효능감과 함께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로 반영하였다.

넷째,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 대인관계능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완전 매개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 분야에 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은 자기효능감이나 대인관계능력이 개입된 진로성숙도 증진 프로그램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시사한다.

## 2. 한계 및 의의

본 연구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00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여대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므로 전체 여대생에 대해 일반화 시키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을 확대하여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목적상 선택된 변인들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이 진로성숙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분석하였다. 그러나 진로성숙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 및 대인관계능력과 진로성숙도의 하위요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통계학적 변인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탐색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관계적 및 상황적 차원의 진로성숙도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통합적 접근 방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자아탄력성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능력에서 모두 매개효과를 발휘하는 연구 결과가 진로성숙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에게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개선시키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 고 문 헌

- [1] 김지연, *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학습전략,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2] 김현희, *전문대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관계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3] 고용노동부, 2016 2월 고용동향, 2016.
- [4]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pp.191-215, 1997.
- [5] Ramos-Sánchez and L. Nichols, "Self-efficacy of first generation and non first generation college students: the relationship with academic performanc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Vol.10, No.1, pp.6-18, 2007.

- [6] S. R. Asher, R. D. Renshaw, and S. Hymel, "Peer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In S. G. Moore. & C. R. Cooper(Eds.), *The Young Child: Reviews of Research,*" Vol.3, pp.137-158, 1982.
- [7] H. Thurman,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New York, Hamper & Row, 1971.
- [8] G. A. Bonanno,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stoo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 *American Psychology,* Vol.59, pp.20-28, 2002.
- [9] J. H. Block and P. F. Gierde,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Personality Antecedent,* In J. Roff, A. S. Masten, D. Dicchetti, K, H, Neuchterlein, & S. Weintraub(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10] 남기양, *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11] 광현, *대학생의 진로신념과 진로결정 자율성, 계획된 우연기술 및 진로결정수준의 구조적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12] 김규순, *대학생의 성격 특성과 직업선택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13] 김은영,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4] 김희수, *REBT를 중심으로 한 진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 능력, 진로태도 성숙, 의사결정 유형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15] 임주영, 윤경자,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학생활만족도 및 성취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8, No.3, pp. 113-130, 2013.
- [16] 함윤정, 김용수, "장애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Vol.54, No.4, 2015.
- [17] 이복희, *여대생의 진로결정수준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18] 이수분, "여대생의 진로지향성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Vol.29, No.2, pp.49-68, 2016.
- [19] 차희정, *학생의 진로대리학습에 따른 진로자기 효능감과 진로적응성 분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20] 문승태, 박미하, 양복만, "대학생의 인간관계와 학습의 자기주도성 및 진로적응성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Vol.25, No.3, pp.39-60, 2012.
- [21] <http://www.welfare24.net/ab-3> 124-149
- [22] 이슬, *음악대학 학생들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 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23] 조연교, *대학생의 성격강점과 활용이 진로태도성숙도, 진로준비행동, 대학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4] 이상희, 서유란, "한국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및 진로정체감과 진로성숙의 관계에 대한 성차연구," *청소년상담연구,* Vol.20, No.1, pp.37-53, 2012.
- [25] A. Bandura, "Recycling Misconceptions of Perceived Self-efficacy,"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8, pp.231-255, 1984.
- [26] D. G. Gardner and J. L. Pierc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within the organization an context," *Group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Vol.23, pp.48-70, 1993.
- [27] 윤영애,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Vol.16, No.4, pp.123-148,

- 2014.
- [28] P. Yelsma, "Self-esteem and social respect within the high school,"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138, No.4, pp.431-442, 1998.
- [29] W. C. Compton, *An Introduction to Positive Psychology*, 서은국, 김진주, 성민선 역(2007), 긍정심리학입문, 서울: 박학사, 2005.
- [30] 김혜영,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31] 한현지, *대학생 스마트폰 중독이 정신건강 및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 부모-자녀관계, 친구관계의 조절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32] M. J. Steven and M. A. Campion, "The knowledge, skill and ability requirements for teamwork: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Vol.17920, No.2, pp.503-530, 1994.
- [33]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12.
- [34] 권경미, *교양무용 참여 대학생들을 위한 우울증 및 대인관계 성격장애)척도개발과 적용*,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35] 유명란, *공학계열 여대생의 진로태도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36] 박미경,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진로장벽, 자아정체감 및 진로결정 수준의 구조모형 분석*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 [37] 이상길, "담임교사와 대화공감도를 비롯한 학교변인과 고교생의 진로정체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18, No.3, pp.613-627, 2006.
- [38] 박명신, 이희래,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결정수준이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복지상담교육연구*, Vol.3, No.1, pp.77-93, 2014.
- [39] S. P. Sheelin and B. G. Guemey,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 [40] J. H. Block and J. Block,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e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13, pp.39-101, 1980.
- [41] M. Rutter,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57, No.3, pp.316-336, 1987.
- [42] 이조경, 백순희,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6, No.3, pp.102-115, 2016.
- [43] N. Garmezy,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Vol.56, pp.127-136, 1983.
- [44] E. C. Kolhen,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170, No.5, pp.1067-1079, 1996.
- [45] E. L. Cowen, P. A. Wyman, W. C. Work, and G. R. Parker, "Test comparison among stress-affected, stress-resilient and non-classified 4th-6th grade urban childre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Vol.20, pp.200-214, 1990.
- [46] O. Atsushi, N. Hitoshi, N. Shinji, and K. Motoyuki,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Adolescent resilience Scale," *Japanese Journal of Counseling Science*, Vol.35, pp.57-65, 2002.
- [47] D. E. Super, "The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Vol.57, pp.151-163, 1955.
- [48] K. B. Hoyt, *The School Counselor and Career Educat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7.
- [49] J. O. Crites, *Manual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for Adults*. Monterey, Calif: CTB/McGraw-Hill, 1978.
- [50] 김양희, *한국 여대생의 문화적 성향 잠재계층 분*

- 류와 진로관련변인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51] 노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의 진로성숙수준 연구,” 청소년학연구, Vol.13, No.6, pp.306-328, 2006.
- [52] 주진석, 청소년의 직업가치가 진로성숙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53] 최영재, 미용전공대학생의 가치관 전공만족도·진로성숙도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54] 남궁혁, 청소년의 진로성숙 및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55] 김형균,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56]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and P. Dunn, B. Jacobs, and R. W.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No.2, pp.663-671, 1982.
- [57] 김아영, 차정은, “교사효능감 및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교육심리연구, Vol.17, No.2, pp.25-43, 2003.
- [58] 나성윤,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 및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69] 서현석, 후기청소년의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후기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60] 민동일, 청소년의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61] 강명숙, 군 입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스트레스 대처방식,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가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62] 이기학,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63] 김말선,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진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64] 탁승현,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의 관계,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65] 소용준, 박준성, “대학생활 적응에 따른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취업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취업진로학회, 제6권, 제4호, 통권16호, pp.23-44, 2016.
- [66] 서우석,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자아 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의 인과적 관계,” 한국실과교육학회, 제28권, 제4호, pp.149-171, 2015.
- [67] 금선미, 여대생이 지각한 희망과 진로태도성숙 및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68] 이현아,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성격 5요인 및 진로태도성숙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69] 이보민,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 [70] 황윤진, 무용전공 여대생의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71] 정희영,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72] 김동일, 남지은, 강민철, “중학생의 대인관계기능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급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pp.1-22, 2015.

[73] 주희진, 조규관,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의 수준에 따른 대인관계능력과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의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제17권, 제8호, pp.491-508, 2017.

[74] 김수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매개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저 자 소 개

정 유 진(Yu-Jin Jeong)

정회원



- 2013년 8월 : 평택대학교대학원 (미술치료학 석사)
- 2015년 3월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박사과정)

<관심분야> : 가족상담, 미술치료, 부부상담

변 상 해(Sang-Hae Byun)

중신회원



- 2003년 : 한국청소년보호재단 이사장
- 2007년 : 백석대학교상담학박사
- 2006년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교수

<관심분야> : 사회과학, 사회복지, 청소년